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헤르만 셀더하위스
(네덜란드 아뻘 도우런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
번역 : **이신열** (고신대, 교의학 교수)

[초록]

본 논문은 결혼의 개혁에 관한 루터의 견해,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는 불링거의 견해, 그리고 칼빈의 결혼과 가정에서의 삶을 다룬다. 루터의 은혜의 신학이 결혼의 개혁을 가져왔다. 이 주제에 관한 그의 글들에서 루터는 결혼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루터는 성경이 결혼을 성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루터는 결혼을 신적으로 정초된 규례로 이해한다.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새로운 결혼 신학의 기초위에서 계속해서 이를 세워나갔다. 하인리히 불링거는 결혼의 개념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으로서 발전시켰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질적인 것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내적 관계이다. 요한 칼빈은 결혼을 교회 내의 교회로 간주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교회와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서를 지닌 가정에서 양육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들의 기독교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논문투고일 2016.5.1. / 수정투고일 2016.6.23. / 게재확정일 2016.6.23.

주제어: 결혼, 성례, 언약, 이혼, 자녀, 요리문답

I. 개요

"결혼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 했던가! … 영적이며 일시적인 검이 모두가 지닌 느슨한 권위가 수없이 많은 잔혹한 남용과 오류적 상황을 양산해 내었으므로 나는 이를 살펴보거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소심함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전진해 나가야 한다. 나는 가련하고 당황하는 양심들을 가르치고 사건을 담대하게 다루기를 시도해야 한다.…" [1)]

이 문장들은 거의 500년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오늘을 위해서 작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결혼의 상황이 소란과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 전통의 설립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 이들이 오늘을 위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어야 했다. 우리가 이 현안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를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던 자들의 (견해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강의에서 나는 마틴 루터, 하인리히 불링거, 그리고 존 칼빈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부써, 브렌츠, 베자와 같은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남

1) Martin Luther, *The Estate of Marriage* (1522).

겨두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마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루터, 불링거와 칼빈을 다루는 이 시간에 이들의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련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II. 변화를 위한 시대

16세기에 결혼의 개혁을 초래했던 것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500년 전인 1516년에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의 새로운 번역본인 그의 노붐 인스트루멘툼과 헬라어 본문의 신판을 발행했다. 이 헬라어 본문은 에라스무스에게 성경이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이 당대에 복잡하게 얽혀지고 비참한 결혼에 관한 법과 실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결혼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결혼이 실제적 이슈가 되었다. 어떤 경우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아래 결혼이 해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했다. 루터가 교회법을 문자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놓은 이후로 결혼은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교회법에 의해서 제재되지 아니하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혼은 급격하게 신학적 이슈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결혼이 성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격하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결혼이 독신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위치는 상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인과 혼인'이라는 제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결혼에 관한 새로운 신학을 고안해 내어야 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관해서 글을 작성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우리에게 단지 세 명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만이 허락되었다.

Ⅲ. 루터: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결혼

41살이 되기까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는 결혼에 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았다. 독신의 삶을 살기로 서약했지만 나중에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배우자를 취했던 모든 사제와 수도사, 그리고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루터에게도 이것은 개인적 문제였다. 마틴 루터는 결혼 개혁의 선봉에 섰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1520)"라는 글에서 그가 결혼이 성례임을 부인했다는 사실이다. 결혼에 신적 약속이나 신적으로 제정된 표징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루터는 결혼의 성례적 성격과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에베소서 5:31-32에 두기를 거부했다. 이제 루터는 결혼이 성례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실천적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때쯤에 한 가지 사실, 즉 사제를 위한 강제적 독신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루터는 이 제도가 많은 사제들의 타락을 가져왔고 일반적 차원에서 사제 제도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믿었다. 루터는 강제적 독신 제도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회복하고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맡겨지기를" [2] 원했다. 독신제도는 하나님의 더 높은 명령이 아니며 결혼은 독신만큼이나 중요하거나 아마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결혼이 독신보다 우월하다는 루터의 논지는 (결혼이) 이제 더 이상 성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성직자 뿐 아니라 평신도에게 결혼의 지위에 대한 논증을 촉발시켰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주석(1523)"에서 이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모든 크리스천이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며(7절) 약혼한 자들에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을 금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라고(29절) 훈계하기 때문에 오래 동안 독신제도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본문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본문을 달리 해석했다. 각자

2) *WA* 6:441,11-12 (*LW* 44:176)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1520). Cf. *WA* 8: 543, 32- 544,10 (*LW* 36:206) (*The Misuse of the Mass*, 1521)

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은사를 부여 받았다는 주장(7절)으로부터, 루터는 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도 은사이며 순결은 소수를 위해 예약된 아주 특별한 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3]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한다. 순결이 아니라 결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종교적인 사안"이며 "참된 종교적 질서"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신앙의 내적 삶을 제외한 어떤 것도 종교적이라고 불려서는 아니되기"[4] 때문이었다. 루터의 눈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결혼은 "성령과 신앙을 향하도록 자극하고 도우며 … 만약 결혼이 왕성하려면 이는 전적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 이런 관점에서 1522년 말에 발간되었던 루터의 결혼에 관한 결정적 논고인 "결혼 생활"이 읽혀져야 한다.[6] 이 논고는 아마도 비텐베르크 근처의 교구에서 1522년 4월과 5월에 행해진 설교에 근거한 것이므로 루터는 이를 설교로 간주했다.

"결혼 생활"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2) 누가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 3)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보다 더욱 자세하게 제1부는 중세에 축적되어왔지만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독교인들을 전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결혼에 관한 교회법의 제한을 거부한다.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루터는 결혼을 창세기 1:26-28에 근거해서 신적인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 규례로 확립한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는가를 다

3) *WA* 12:104,19-33; 105, 5-13 (*LW* 28:16-17).
4) *WA* 12:105,17-26 (*LW* 28:17).
5) *WA* 12:107,13-16 (*LW* 28:19).
6) *WA* 10/2:275-304 (*LW* 45:11-49).

룬다. 이 창조의 규례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논증의 짐은 결혼하기로 결정한 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지워진다. 루터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결혼으로부터 제외하셨다고 말한다: 성적으로 불능인 자, 거세된 남자, 성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자. 후자는 "천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기 때문이다." [7] 다른 모든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구체적이며 성경적 선례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피를 나눈 가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다. 이런 장애물을 언급하는 목적은 중세 유럽에서 최근에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결혼의 분명한 기독교적 실천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 세기가 지나는 동안, 비록 루터에 의해서 전적으로 금지되었던 벌금의 지불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은 더 강화되고 과도해졌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불신앙의 장애는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무슬림, 유대인 또는 이단자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장애를 거부함에 있어서 루터는 결혼의 세속적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선언을 남겼다.

다른 세속적 시도와 같이 결혼도 외적이며 육체적인 것임을 깨달으시오.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타고, 사고 말하고, 유대인, 터키인, 또는 이단자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는 이들과 결혼하고 혼인 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오. 당신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즉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실제로는 어떤 유대인, 이방인, 터키인, 또는 이단자들보다도 그들의 숨겨진 불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게으르고 거짓된 기독교인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 이방인도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7) *WA* 10/2:276,9–277 (*LW* 45:21).

루시와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8)]

이 새로운 결혼의 신학은 이 논고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다. 제2부는 이혼을 위한 근거를 다루는데 루터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수용한다: 성적 불능, 간음, 그리고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의 성행위에 대한 거부(부부의 빚 또는 의무). 결혼이 지니는 성례적 성격에 대한 거부는 이혼을 위한 길을 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례로서의 결혼의 경우 배우자들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결혼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의 배우자에 의해 버림받거나 배신 당할 때 혼자 사는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 배우자들이 재혼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는 맥락에서 유럽 대륙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이혼에 대한 근거를 수용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도 이혼이 실제로 허용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추천하기를 꺼려했다. "결혼생활"에서 루터는 적어도 간음의 경우에 기독교인이 이혼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루터는 비록 결혼이 특별하게 기독교적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 논고의 마지막 부분을 개요하면서 루터는 "제3부에서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결혼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9)] 처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양성 모두를 하나님의 일로서 존중하고 여성과 결혼 생활을 폄하하는 "이교적" 서적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10)]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인식하고 이를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

8) *WA* 10/2:283,8-16 (*LW* 45:25).
9) *WA* 10/2:292,8-10 (*LW* 45:35).
10) *WA* 10/2:293,7-11 (*LW* 45:36).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제정하셨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돌보도록 하셨음을 굳게 믿어야한다." [11] 기독교 신앙은 가정생활의 모든 무의미하고 비호감적인 의무를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이들이 가장 값비싼 금과 보석처럼 신적 수락으로 치장되었음을 깨닫는다." [12] 이 시점에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과 더불어 기저귀를 씻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사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3] 이 언급에 있어서 루터의 요점은 때로 간과되기도 한다. 루터는 부모의 일상적 의무를 일반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신적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 자신의 일로서 인식하기를 의도한다. 그의 "창세기 주석(1535-45)"에서 루터는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감을 높이 사면서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일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14]라고 말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데 부부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지속 되며 조화는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기대되지 않았던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랑은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다. 이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은사이다. 그러나 당신은 기독교인이므로, 반드시 이것이 당신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5]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타락 이전에 결혼은 참된 동반자 됨이었으며 아담은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알았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와 명령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었고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

11) *WA* 10/2:294,25-29 (*LW* 45:38).
12) *WA* 10/2:295,27-296:2 (*LW* 45:39).
13) *WA* 10/2:296,27-297,4 (*LW* 45:39).
14) *WA* 42:477,35-36 (*LW* 2:301).
15) *WA* 42:478,4-8 (*LW* 2:302).

로는 모든 악령의 교훈에 맞서서 견고한 것이다(딤전 4:1). 결혼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확립되었기에 이는 삶의 신적 형태에 해당된다." [16]

루터는 결혼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척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면에 숨겨진 신적 의도를 강조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결혼의 신성함을 회복하기를 시도했다. 1531년에 행해진 결혼 설교의 한 단락이 특별히 생생한 방식으로 그의 의도를 사로잡아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에 유일한 여인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에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약속하시며, 실제로 당신에게 당신의 배우자를 제공하신다. "이 남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피조물들이 기쁨으로 벅차 뛰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사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17]

루터는 순결과 결혼에 관해 견해에 있어서 교회를 성경적 견해로 되돌려 놓은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불링거와 칼빈이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이제 우리는 불링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6) *WA* 42:100,40-101,2 (*LW* 1:134). 루터는 아내의 모델이 남편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죄 이후에 주어진 법의 결과라고 제시한다. *WA* 42:103.31-33 (*LW* 2:137-38).
17) *WA* 34:52,12-21.

Ⅳ. 불링거: 언약으로서의 결혼

하인리히 불링거(1504-1575)는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의 후계자이었으며 개혁신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불링거는 사제였는데 종교개혁에 가담한 후 1529년에 이전에 수녀이었던 안나 아딜슈바일러와 결혼했다. 불링거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일종의 모델이었다: 그의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정이었으며 부드러웠다. 11명의 자녀 중에 모든 아들들은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

1540년에 그는 결혼에 관한 위대한 작품인 "기독교 결혼"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모든 측면들이 다루어졌다. 이 책의 영역본은 "결혼의 황금책"이라는 제목으로 명명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되었던 결혼의 언약적 모델은 독일어가 사용되는 지역과 영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독어본은 4판까지 발행되었으며 영역본은 10판까지 발행되었다.[18] 이 책에서 불링거는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확립된 훌륭한 제도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참고하면서 불링거는 결혼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기를 원했다.

불링거는 결혼의 성격이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인간은 변했고 죄인이 되었지만 결혼은 신적 제도와 하나님의 은사로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지된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불링거는 히브리서

18) Heinrich Bullinger, *Der christliche Ehstand* (Zurich, 1540). 이 책은 마일스 카버데일에 의해서 영어로 *The Christian State of Matrimonye* (London, 1541)로 번역되었다. 카버데일은 성경의 초기 번역자이기도 했다. 이 영역본은 토마스 베컨의 익명인 테오도르 바실에 의해서 이듬해 *The Golde Boke of Christen Martrimonye* (London, 1542)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3:4에 나타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귀히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빈번하게 인용한다. 결혼의 조성자 자신과 결혼이 처음 제정된 곳인 천국이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신자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결혼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에 해당된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이다. 따라서 결혼의 언약적 성격은 결혼에 대해서 행해진 죄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해진 죄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결혼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반하고 그와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행음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행음은 우리를 언약의 위반자로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회원들을 욕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에 핵심적인 것은 결혼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이다. 이를 토대로 마음과 몸, 그리고 소유에 있어서 하나됨이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결혼은 인간에게 가능한 가장 숭고하고 심오한 교통에 해당된다. 성경, 교부들, 그리고 고전 작가들에 기초한 다양한 종류의 논증에 근거해서 불링거는 결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명제에 토대를 두고 불링거는 결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유비적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하나의 언약이 존재하듯이, 타락 전후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결혼이 존재한다. 또한 언약이 쌍방적인 것처럼, 결혼 관계도 쌍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웰빙을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결혼도 이를 목적으로 삼는다.

불링거가 결혼의 목적을 논의할 때, 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정직하게 그리고 친구처럼 더불어 살면서 불결함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조성하셨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자녀의 출산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것이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이 참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둘째 목표로서 그는 비순결의 예방을 가리킨다. 그는 즉각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행위가 죄도 아니며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라고 부가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언급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결혼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것은 상호적 교제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로서 미래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안된 학교와 같이 결혼은 강한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 결혼은 다른 모든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는 사회적 공동체에 해당된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변절과 신앙에 대한 무시라는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이 결혼은 피할 수 없는 결혼이 아니기에 불링거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양가 부모의 동의는 유익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당사자가 진심으로 이 결혼에 동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불링거는 이혼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다. 더욱이, 결혼의 연합은 아주 신성하므로 이혼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불링거는 만약 사람들이 이혼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삶에서 해방되고 훌륭한 결혼 생활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특별한 상황에서 이혼이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불링거에게 근본적인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사랑, 마음, 성향, 그리고 본성적 애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술은 주어진 의무와 결혼한 자들의 언약은 그들 가운데 가장 고상한 사랑, 결합, 연합이므로 죽음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따라서 결혼에 존재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외하고) 모든 사랑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제공하는 사랑은 가장 탁월하고 고통이 결여된 희생, 근면, 그리고 진지한 노동이다.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서로를 위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의 언약이라는 구도 속에서 가정은 번성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기도 하다. 이 주제를 위해서 칼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Ⅴ. 칼빈: 가정과 교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자녀와 청년들에게 위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은혜 언약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기독교 부모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격 자체에 의해서, 부패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은혜에 의해서 성화된다. 언약에 있어서 그들이 자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특별히 호의가 베풀어진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며 주님을 위해서 구분(성화)된다. 이 이유 때문에 자녀들은 세례 받을 권한을 지니게 되며 이들에게 세례 받을 권한이 주어진다. 세례는 그들에게 일종의 장려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닐 때 까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다.[19]

19) *CO* 48, 196-97.

칼빈 신학의 인식적 차원과 관련되는 가르침의 측면 (이것은 교리적인 것으로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은 청년들에게 배우고 깨닫도록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확실히, 칼빈주의 전통의 자녀들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감정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결과를 지닌다. 개혁주의 전통의 자녀들은 말씀의 신학에 기초한 읽는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더 나은 역량을 지니고 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기를 목적으로 삼는 설교에 집중한다. 게다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요리문답과 학교교육이 시행되었다.[20]

오늘날의 교회는 칼빈에게서 가르침을 떠나서는 삶이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들은 코람데오(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백성들이며, 공동체의 일부이며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귀중하고 독특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피조물이며, 자신의 직업, 돈, 그리고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으며 자신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교회가 설교, 목회적 돌봄, 요리문답과 더불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차단되고 잔인하게 제거되는 디지털 공동체, 채팅 그룹의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체로 남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한다.[21] 그러나 이들이 모든 것과 더불어 도망가도록 허락되어

20) R.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weisungs- und Erzei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Heidelberg: Quelle & Meyer, 1969);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Eerdmans, 2006).
21) *CO* 27, 678.

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이들에게 해롭도록 자녀들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을 교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위협받는다면, 부모들은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며 인내심을 지니고 계속해서 자녀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22] 따라서 칼빈은 부모들에게 단지 그들의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발견하도록 의견을 제공했다.[23]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살도록 허락을 받은 자녀들은 그들이 여전히 자녀라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들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요리 문답 없이 교회가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24] 이므로 즉각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서를 작성했다. 칼빈은 자녀들이 성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는 이 도시의 모든 교회에서 매 주일 정오에(요리문답이 교수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요리문답반과 봉사자들을 구성하였다.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는 자녀들이 이에 참석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자녀들은 성만찬이 시행되기 전에, 일 년에 4회씩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받았다. 이들은 요리문답 일부를 반복적으로 암송하거나 요약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입교 문답반은 자녀들의 가슴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적용되었다. 자녀들은 구원의 결정적 진리를 학습함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의도되었다. 칼빈에게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성장

22) *CO* 27, 680.
23) *CO* 51, 783.
24) *CO* 13, 71-72.

과 가르침의 하나됨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는 입교문답을 위해서 다양한 교재들이 존재하는 것에 개연치 아니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칼빈 자신도 이 목적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였다. 1537년에 첫 번째 책이, 1542년에 두 번째 책이 출판되었다. 두 번째 책에서 그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5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모든 성경적 주제가 한 해 동안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이 교재에 대한 서문을 작성했다. 이 교재는 곧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일 뿐 아니라 감성적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시편을 새로운 형태의 운율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읊도록 했다. 그는 성인들도 어린이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학교교육은 칼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훌륭한 교사들이 채용되고 임금이 인상되며 실패한 교장들이 다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참석했다. 교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두 번째 부분은 스콜라 푸블리카로서 나중에 제네바 대학이 되었던 아카데미의 전신이었다. 첫 번째 부분은 스콜라 프리바타이었다. 이는 다시 일곱 학년으로 분할되었다. 6학년과 7학년에 속한 자녀들은 주로 엄청난 분량의 프랑스와 라틴 문학을 읽었는데 이를 위한 기초는 학교 첫째 해에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칼빈의 영향력이 발견된다. 어린이들은 수업시간에 정숙해야 했으며 조화롭게 함께 학습에 임해야 했다. 수요일에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갔는데 주일에는 두 편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이들은 시편의 구절들을 배웠으며 4학년부터는 라틴어만을 말했다. 엄격한 규율이 시행되었으며 학습을 위해서 때리는 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아주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매주말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주기도문과 요리문답,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1558년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칼빈은 건축가, 목수,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의 일부와 함께 건물

과 장소가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칼빈은 건물이 안전한 장소에 세워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도시공공건물의 모든 창과 발코니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시의회에 제시했다.

어린이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서를 갖춘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들의 기독교적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다. 칼빈은 이미 젊은이들의 사랑의 매력적이며 위험한 측면에 대한 견해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견해와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이었다. 유혹적인 복장, 화장, 위태로운 노래, 세속적 농담 또는 에로틱한 가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과식, 술집방문, 동행자 없이 돌아다니는 것, 목욕과 수영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 외에 허락된 것은 없었다. 칼빈은 결혼의 범위를 넘어선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간음으로 간주했으며 이것이 약혼한 사람들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었다.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이미 행해진 대로, 칼빈은 외적 단순함과 내적 안정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도 적용되었다. 여성에게 그녀의 마음과 영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눈이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25] 이 부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는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남자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26] 또한 여자

25) *CO* 2, 112.
26) *CO* 23, 402.

가 남자를 선택할 때, 남자를 살펴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칼빈은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얼마든지 쳐다 볼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었다.[27]

결혼하기 전 얼마간의 기간 동안, 커플은 그들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열정적 접촉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에, 칼빈의 견해는 결혼일에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구속력을 지닌 결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세 교회법에 의해서 허용된 실천과는 거리를 둔다. 칼빈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바라는 것에 따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젊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이 정략 결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부모가 결혼에 찬성해야 하지만 이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상호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는 결혼을 모독하는 것이며 참된 의미에서 결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결합은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28] 다른 종교개혁 목회자들과 대조적으로, 칼빈은 결혼에 대한 부모의 동의의 필요성을 제5계명(네 부모를 공경하라)으로부터 도출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 질서에 관한 문제이었다.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었기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었다.[29] 이와 관련해서 결혼에 앞서서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던 예들을 성경에서 언급하였다.

27) *CO* 23, 185.
28) *CO* 23, 306.
29) *CO* 23, 306.

칼빈은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 유대인, 무슬림과의 결혼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결혼에 대해서 법적 금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강하게 주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비록 죄악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과의 결혼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0] 이것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 칼빈의 기본적 출발점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과 자신의 배우자의 신앙의 결여가 결혼을 모독하는 것(고전 7:14)보다 더 축복이 된다는 점이었다. 칼빈에게 이 규칙은 특히 한 쪽 배우자가 나중에 신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는 신자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이 결여된 두 사람 사이의 결혼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자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 사이의 결혼은 성경과 칼빈에 의해서 거부된다.

결혼에 관한 모든 규칙은 결혼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의 거울 이미지에 해당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 이유로 인해 칼빈에게 결혼의 양 당사자가 사랑과 연정을 표현하여 이 결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칼빈에게 결혼은 법적 동의나 계약이 아니었으며 각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짐이 아니라 봉사의 정신에서 존재하다는 동맹이었다.

Ⅵ. 결론

종교개혁은 갱신과 변화의 운동이었으며 이는 확실히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에도 적용된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돕는다. 이 성경적 견해가 알려

30) *CO* 13, 307-8.

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닌 교회를 필요로 한다. 칼빈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어머니에 해당된다.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침으로서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설교와 교리문답교육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될 때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적합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정보들을 가려내고 이를 해석하고 그들의 결혼과 가정, 교회와 사회의 삶, 그들의 개인적 삶,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분별하기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루터, 불링거, 그리고 칼빈은 이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이며 이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많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탁월한 안내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Reformation of Marriage: a Message for Today

Herman J. Selderhuis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t the Theological University Apeldoor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views of Luther (the reformation of marriage), Bullinger (marriage as covenant) and Calvin (marriage and family life). Luther's theology of grace re-

sulted in a reformation of marriage. In his treatises on this topic he presented a reappraisal of marriage and of the rel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From Erasmus'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Luther learned that the Bible does not speak about marriage as a sacrament. Luther establishes marriage as a divinely-willed ordinance. Reformers after Luther continued to build on the basis of this new theology of marriage. Heinrich Bullinger developed the idea of marriage as a covenant between husband and wife. Marriage is an image of the relation between Christ and the believer. Essential is thus the inner relation of love and commitment. John Calvin sees marriage as a church within the church. Parents should teach their children what it means to be in a covenant with God. For children to grow up to be participants in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they need to be brought up in an ordered family and they also need to be prepared for their own Christian marriage.

Keywords: marriage, sacrament, covenant, divorce, children, catechism

[참고문헌]

Bullinger, Heinrich. *The Christen State of Matrimonye*. trans. Miles Coverdale. London, 1541.

Hedtke, R.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 weis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Heidelberg: Quelle&Meyer, 1969.

Calvin, J.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unt omnia*(=*CO*). 1863-1900.

Luther, Martin. *The Estate of Marriage*, 1522.

_____. *Martin Luther's Werke(=WA)*. Weimar:Weimar Ausgabe, 1883-1929.

_____. *Martin Luther's Works(=LW)*. ed. Jaroslav Pelikan and Helmut T. Lehmann, 1955-1986.

Zachman, R. C.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Eerdmans, 2006.